『中國學』第82輯 (2023.03.31.)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2.82.3
pp.035-055. ISSN : 1229-9618

# 국가 주도 표어(slogan)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본 중국의 시대별 변화 고찰

## - 1949-2015년 중국 표어를 중심으로

기유미*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연구 대상 및 방법
3. 키워드 분석을 통한 단어 사용 추이 고찰
   1) 시대별 표어 속 키워드(단어) 사용 추이
   2) 시대적 변화와 표어 문구 대조
4. 맺는말

【초록】

본 연구는 1949-2015년 가운데 중국의 표어 출현율이 최고점을 나타내는 시기를 중심으로 표어에 나타난 키워드(단어)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통시적인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기에 나타난 표어에서 키워드(단어)를 추출하고, 이를 시대적 배경 및 사건과 연관 지어 그 변천사를 살펴보았다. 표어 문구에 나타난 키워드(단어)의 추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초기에는 정치적 표어가 주류를 이루다가 점차 사회 및 경제발전을 제창하는 표어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각 시기에 주요 정책과 사건, 인물 등이 반복하여 언급되었다. 또 시대별로 중국과 그 주변국의 관계 변화도 표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키워드】 표어, 중국표어, 슬로건, 키워드분석, 통시적분석

* 기유미.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HK연구교수 (kym0331@hotmail.com)

# 1. 들어가는 말

표어는 짧지만 매우 집약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표어 자료가 가치 있고 중요한 이유는 표어가 대중들에게 주요 정책이나 행동강령을 전달한다는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한 국가가 걸어온 시대상을 문자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高剑, 李友云(2012)은 표어의 주제는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표어가 한 가지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의 정책과 방침을 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유물이 당시의 시대와 생활상을 알려줄 수 있듯이 표어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별로 나타난 표어를 수집하여 살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남겨진 자료는 특정 주제의 표어(红军标语, 湖南省炎陵县红色文化博物馆)를 특별히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거나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서적[1]에서 부분적으로 남긴 것을 제외하면 수많은 표어가 역사 속에서 소실되었으며, 또 출현 시기도 불분명한 것이 많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표어 자료를 시기별로 수집하는 것이 선두가 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키워드 단어의 분포를 역사적 배경 및 사건과 연결하여 살펴본다. 이로써 표어를 통해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이슈의 변화를 읽을 수 있을 것이며, 또 반대로 각 시대 속에서 표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표어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특정 주제를 가진 표어[2]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다른 하나는 표어 문구의 구성에 관한 언어학적 분석[3]이다.

본고는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연구 대상이나 방법 면에서 모두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대상은 국가 주도, 즉 국가가 중심이 되어 제창한 표어이며, 표어 문구 내에 나타나는 키워드(단어)가 중심이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특정 하나의 주제나 한 시기의 공시적 표어 자료가 아닌 통시적인 관점에서 출현한 표어 자료를 시기별로 살펴본다는 점이 새로운 시도이다. 이는 자료 수집에 있어서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존에 유사 연구가 없을 수밖에 없다. 또 앞으로의 연구는 한 분야의 연구 영역과 전통적 연구 방법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언어학 연구의 기본 틀에서 출발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중국학의 다양한 시각을 접목하여 현상을 한층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1) 예: 陶永灿,『老标语－－中国墙壁上的历史』,电子工业出版社, 2012. 등
2) 예: 马郢雪,「抗疫标语语用功能与传播价值研究」,『新闻研究导刊』, 2021; 张严文,「抗日战争中中国共产党标语口号宣传研究」, 理论观察, 2019.
3) 屈志凌,「浅谈标语口号的语言特色」,『读与写』(教育教学刊), 2007.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언어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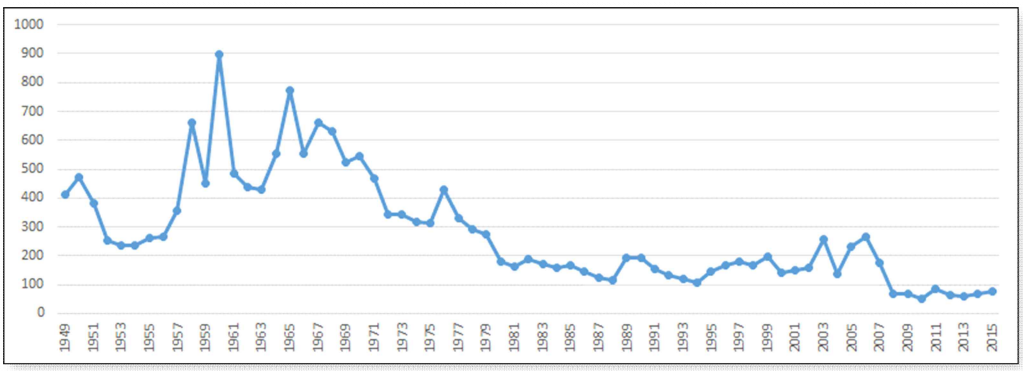
## 2. 연구 대상 및 방법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표어 자료는 박물관 또는 서적에서 일부가 남겨져 있지만 출현한 시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과 대조하여 살펴보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던 중 본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BCC(BLCU Corpus Center)에서 历时检索(통시검색) 탭을 통해 '标语'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1919-2015까지 총 29439개의 결과를 보여준다. BCC에는 다영역(多领域), 문학(文学), 신문·잡지(报刊)등이 있는데, 표어 자료의 본 출처는 대부분 인민일보였다. 본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인 1949-2015년 시기로 제한하여 총 18834개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해당 코퍼스가 표어 문구를 즉각적으로 추출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자의 선별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지정된 1949-2015년 시기를 10년 주기로 나누고, 그 가운데 최고점 시기에 나타난 표어 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각 시기에 나타난 키워드 단어의 사용 추이를 분석하고, 특정 표어가 나타난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지어 표어의 변천사를 고찰하고자 한다.

## 3. 키워드 분석을 통한 단어 사용 추이 고찰

우선 1949-2015년 전체 시기에서 표어가 나타나는 추세를 변동 그래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래프1> 1949-2015년 표어 출현율 변동 양상

시기별로 표어 출현율의 변동 폭이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영향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기를 기점으로 표어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그 후로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80-90년대는 이전 시기보다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대적인 정체기를 나타낸다. 2000년대 초반에도 한두 차례 증폭기가 나타나지만, 이전보다는 미미하다. 이 가운데 1960년대는 다른 시기보다 표어 출현율이 눈에 띄게 높아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시기도 각각 최고점을 나타내는 시기에 어떤 표어들이 출현했는지에 대한 탐색도 의의가 있다. 아래는 1949-2015년을 약 10년 주기로 나누고, 표어 출현율이 최고점인 시기를 따로 분류한 것이다.[4] 이를 토대로 다음 소절에서는 각 시기에 나타난 키워드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 시기 | 최고점 시기 | 출현빈도 (단위:개) |
|---|---|---|
| 1949-1958 | 1958년 | 660 |
| 1959-1968 | 1960년 | 896 |
| 1969-1978 | 1970년 | 545 |
| 1979-1988 | 1979년 | 276 |
| 1989-1998 | 1990년 | 195 |
| 1999-2008 | 2006년 | 268 |
| 2009-2015 | 2011년 | 85 |

<표1> 표어 출현율 최고점 시기

## 1) 시대별 표어 속 키워드(단어) 사용 추이

키워드의 사전적 의미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특정한 내용이 들어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이다.[5] 즉 키워드는 특정 데이터 자료 내에 포함된 단어이다. 이외에 학문적인 별도의 정의를 제시하는 경우는 없지만, 기존 키워드 분석 관련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명사형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김호태 외2(2018), 김동욱 외3(2022)[6]과 같이 일부 연구에서는 긍·부정의 감성을 표현

4) 전체 시기의 자료는 방대하여 시기별 세부 분석 내용은 향후 연구에서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는 최고점 시기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5)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6) 김호태, 김동성, 김종우(2018),「로동신문 키워드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대외적 행태 변화」,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발표자료, 2018. 김동욱 외 3,「코로나19 관련 키워드 분석: 토픽 모델링과 의미 연결망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21권 제2호,

하는 비 명사적 단어[7]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키워드(단어)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본고는 표어 문구에서 정치 및 경제 그리고 사람(인물), 국가, 단체, 사건 등 주제에 따른 명사형 단어 그리고 당시 어떤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동사, 형용사의 일부 단어 모두를 키워드로 설정하였다.

아래는 1949-2015년 전 기간에서 출연 빈도 상위 50개의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 생성기(WordItOut)를 통해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1> 1949-2015년 상위 50개 단어

다른 단어들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표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人民'과 '万岁'이다. '人民'은 국가와 사회의 중심 구성원이자 국가가 표어를 통해 제시한 정책의 실행 주체이기도 하다. '人民'은 표어에서도 중심 키워드이지만, 중국 사회 전반에서 대표되는 키워드 (단어)이기도 하다. 2021년 9월 暨南大学에서 전시한『人民日报』语料库(1949-1958) "红色"热词热语变迁展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단연 '人民'이다.

'万岁'는 "毛主席万岁!"와 같이 마오쩌둥 시대에만 주로 쓰인 표현이라 생각되지만 표어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쓰였다. 예를 들어 "大跃进万岁", "人民公社万岁", "中国人民胜利万岁", "中越两国人民的伟大友谊和战斗团结万岁!", "世界人民大团结万岁" 등과 같이 바람이나 경축을 표하고, 환호하며 외치는 표현으로 표어 구성에서 자주 사용된다. 또 "中X友谊万岁"와 같이 특정 국가와의 공고한 외교관계를 과시(誇示)하는 경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2022.

7) 예: 주동적, 적극적, 뻐젓이 등.

우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그림2>『人民日报』语料库 (1949-1958)
"红色"热词热语变迁展 전시내용

이상에서 제시한 단어들 외에 <표1>에서 표어 출연율이 최고점을 나타내는 각 시기[8]에 나타난 키워드(단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로 특별히 포함하였다) 다음에 나열된 키워드(단어)는 표어 속에서 최소 2번 이상 언급되고, 경제, 정치 등 주제에 연관되는 단어를 위주로 선별하였다. 경제, 정치 등의 주제로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렵지만, 해당 시기에 자주 등장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어의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여 나열하였다.

아래 나열된 일부 명칭이나 표현은 사실상 '단어'보다 더 큰 단위인 '구'이지만,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경우 본 의미가 소실되므로 본고에서는 편의상 '단어'의 개념을 언어학에서의 개념보다는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범주까지로 확대 제시하였다.

1949년은 표어 출현의 최고점 시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인 첫 시작점의 시기로 특별히 제시하였다. 우선 '인민해방군'과 '국민당' 단어가 자주 등장하며, '마오쩌둥'과 '장제스'도 예상대로 다수 출현하였다. 당시에는 경제와 관련된 단어보다는 정치와 관련된 단어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기타]에 분류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다른 시기보다 전쟁이나 투쟁과 관련된 표현이 주를 이룬다. 이후의 시기들에서는 반대로 이러한 단어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국가 정책과 사회 흐름도 바뀌게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단어)는 당시에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했거나 대적 상황

8) <표1> 최고점 시기 1958년, 1960년, 1970년, 1979년, 1990년, 2006년, 2011년.

에 놓인 국가 명칭이 표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는 것이다. 우호 관계의 국가에는 ‘XX团结万岁’나 ‘XX友谊万岁’ 등으로 표현되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打到XX’ 등으로 표현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시기 :1949년 | |
|---|---|
| 주제 | 연관단어 |
| 경제 | - |
| 정치 | 人民解放军(인민해방군), 中央人民政府(중앙인민정부),<br>(打倒)帝国主义((타도)제국주의), 国民党(국민당) 등 |
| 사람(인물) | 毛泽东(마오쩌둥), 蒋介石(老蒋)(장제스), 斯大林(스탈린) |
| 국가 | 中苏(중국-소련), 苏联(소련), 中朝苏(중국-북한-소련), 越南(베트남),<br>中越(중국-베트남), 台湾(대만) 등 |
| 기타 | 人民(인민), 英雄(영웅), 反动派(반동파), 匪军(적군), 打倒(타도),<br>惩办(처벌), 压制(압제), 打死(때려죽이다), 杀敌(적을무찌르다),<br>战争(전쟁), 斗争(투쟁), 战士(전사), 奋斗(분투), 胜利(승리), 团结(단결),<br>伟大(위대) 人力(인력), 畜力(축력), 种麦(밀재배) 등 |

<표2> 1949년 표어에 등장한 키워드(단어)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가는 소련이다. 소련은 유럽 냉전 당시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동아시아 외교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초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또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의 승리를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당과 국민당 모두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1946년 소련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1949년에는 공산당의 승리로 기울자 중국공산당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였다. 마오쩌둥은 1949년 양국의 대표를 파견하고 외교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이후 1950년 2월에는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中苏友好同盟互助条约)을 체결한다.[9] 따라서 이 시기 표어에서 ‘斯大林(스탈린)’을 비롯하여 ‘(打倒)帝国主义((타도)제국주의)’ 및 소련이 다수 등장하는 것이다. 그 외에 베트남과 북한도 다른 국가에 비해 다수 거론된다. 중국은 1950년대 초반 베트남과 북한에 군사적 개입과 지원을 통해 아시아 공산주의 정치세력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10] 이처럼 표어 자료를 통해 당시의 국가체제, 사회변화, 국가 간의 외교관계 등 다방면의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

다음에 나타나는 50년대 이후의 시기는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이 제시된다.

9) 이미경, 「한국전 후 북한과 중국, 소련의 관계: 협력속의 균열」, 『중소연구』, 24권4호, 아태지역연구센타, 2000.

10) 한상준, 「중국의 북한과 베트남 정책 연구, 1949~1964」, 『국제중국학연구』, 97권, 한국중국학회, 2021, pp.505-506.

| 최고점 시기 : 1958년 | |
|---|---|
| 주제 | 연관단어 |
| 경제 | 大跃进(대약진)[11], 人民公社(인민공사)[12], 土地改革(토지개혁), 集体化((농업)집단화), 纺织工业(방직공업), 工业和农业(공업과농업), 无产阶级(무산계급) 등 |
| 정치 | 社会主义(사회주의), 共产主义化(공산주의화), 共产党(공산당), 群众路线(군중노선)[13], 实事求是(실사구시), 总路线(총노선)[14], 革命(혁명) 등 |
| 사람(인물) | 周总理(저우언라이 총리) |
| 기타 | 粮食(식량), 小麦(밀), 棉花(목화), 钢水(쇳물), 劳动(노동) 등 |

<표3> 1958년 표어에 등장한 키워드(단어)

위에 나열된 1958년의 주요 키워드(단어)를 살펴보면 50-60년대에 진행된 주요 정책들이 나타난다. 1950년 6월에 공표되고 시행된 토지개혁, 1958년-1960년대로 이어진 대약진운동과 그에 따라 설립된 인민공사 등 표어의 총 수량은 1958년에 최고점을 찍었지만, 그와 관련된 정책 내용은 그 전후 50-60년의 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심지어 '群众路线(군중노선)'과 같은 표현은 사실상 1929년에 처음 등장했지만[15], 50년대를 비롯하여 현재 시진핑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는 당대의 특정 표어 및 표어 속 단어가 줄곧 이어져 오고 생존한 대략적 기한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외에도 표어에 나타난 纺织工业(방직공업), 工业和农业(공업과농업) 및 粮食(식량), 小麦(밀), 棉花(목화), 钢水(쇳물), 劳动(노동) 등의 단어를 통해서 당시에 중요시한 경제 생산 활동도 알 수 있다.

1959년 대약진운동은 종료되었지만, 농업과 경공업의 생산량은 지속해서 감소하였다. 그 후 「关于1960年国民经济计划的报告」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한다. 1960년대 경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농업 기구를 개선하고 농업기술에서도 반기계화와 기계화를 도입하고 기술혁신과 기술혁명을 선도하고자 한다. 표어에서도 마찬

11)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중국정부가 농공업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의 고도성장 추진을 위해 펼친 군중운동(辞海官方网站: 『辞海』(第7版))

12) 공(工)·농(农)·상(商)·학(学)·병(兵), 즉 경제·사회·군사 조직 등이 일체화된 중국 농촌의 사회생활 및 행정조직의 기초단위로 사회주의 집단소유제의 경제 조직이다. 인민공사는 대약진 운동과 함께 조직되었다. (辞海官方网站: 『辞海』(第7版) 및 김상균, 신동윤, 『사진으로 보고 배우는 중국문화』, 동양books, 2015, p201. 참고)

13) 중국공산당과 국가기관이 인민대중과의 관계문제를 처리하는 근본적인 태도와 지도방법. 모든 일은 군중을 위해, 군중에 의거한, 군중에서 시작하여 군중 속으로 그리하여 당과 인민정부의 의견이 군중의 의식적인 행동에서 변화되는 것(『毛泽东选集』(第3卷))

14) 마오쩌둥이 제정하여 1958년 5월 제8차 당대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15) 「陈燕楠 : 最早提出群众路线这一说法是在1929年」(人民网-中国共产党新闻网, 2013.04.01.)에 의하면 '群众路线'이란 표현은 1929년에 처음 등장했다.

가지로 '技术革新(기술혁신)', '技术革命(기술혁명)'라는 단어가 다수 출현하였다.

| 최고점 시기 : 1960년 | |
|---|---|
| 주제 | 연관단어 |
| 경제 | 技术革新(기술혁신), 技术革命(기술혁명), 农业(농업), 化工(화학공업), 工人阶级(노동자계급) 등 |
| 정치 | 社会主义(사회주의), 共产主义(공산주의), 马列主义(마르크스 레닌주의) 등 |
| 사람(인물) | 华侨(화교), 侨胞们(교포들) |
| 기타 | 粮(粮食)(식량), 三麦(밀,보리,메밀), 钢(강철), 高炉(용광로), 劳动(노동) 등 |

<표4> 1960년 표어에 등장한 키워드(단어)

또 하나 다른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단어는 '华侨(화교)'이다. 사실 1950년대 초 중국에서는 귀국 중국인, 해외 화교는 '자산계급 분자'로 분류되어 합법적 권익을 누리지 못했고,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도 귀국 중국인과 화교 가족은 '해외 관계'가 있는 신분으로 여겨 정치 운동 시에 '반 혁명분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16]이 당시 상황이었다. 그런데 "伟大祖国是华侨有力的靠山(위대한 조국은 화교의 든든한 지원자)"과 같은 표어가 나타난다. 당시 중국은 화교가 귀국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1960년대에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sela t panjang이라는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여 중국 화교의 상권과 주거지를 소실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 중국 정부가 '大宝康' 기선을 급파하여 화교를 귀국하게 하였다.[17] 이러한 배경에서 나타난 표어이며, 해당 표현은 현재도 종종 사용된다.

| 최고점 시기 : 1970년 | |
|---|---|
| 주제 | 연관단어 |
| 경제 | 技术革新(기술혁신), 技术革命(기술혁명) 등 |
| 정치 | (越南)抗美救国战争((베트남)항미구국전쟁), 美帝国主义(미제국주의) 등 |
| 사람(인물) | 毛主席(마오주석) |
| 국가 | 中越(越南)(중국-베트남), 朝中(북한-중국), 中阿(중국-아랍), 中巴(巴基斯坦)(중국-파키스탄), 刚果(콩고), 中国和索马里(중국과 소말리아), 台湾(대만) 등 |
| 기타 | 战争(전쟁), 斗争(투쟁), 战斗(전투) 등 |

<표5> 1970년 표어에 등장한 키워드(단어)

16) 이준태, 「華僑社會의 형성과 中國의 華僑政策에 대한 고찰」, 『아태연구』, 제11권 제1호,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04, pp.210-211.
17) 「泉州印尼归侨庆回国50周年 感叹祖国是有力靠山」(中国新闻网, 2010.05.24.)

앞서 살펴본 1960년대에 이어서 1970년대 표어에서도 1960-1975년까지 이어진 베트남전쟁을 지지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예: 坚决支持越南人民的抗美救国战争! 베트남 인민의 항미구국전쟁에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기타에 나열된 '战争', '斗争', '战斗'의 전쟁 관련 단어 역시도 베트남전쟁에 대한 언급이다.

1970년대 표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단어)의 변화는 중국과 관계를 맺은 주변 국가들이 증대했다는 것이다. 1950년대에 공고했던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1969년 중소 국경에 위치한 전바오다오(珍宝岛)에서 발생한 분쟁[18]과 함께 균열 되었으며, 중국은 소련의 팽창이 중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겼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제3세계론'을 제시하고, 과거 '반제국주의'에서 '반소 패권주의' 대외전략으로 전환하게 된다. 제3세계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가, 아프리카 및 중남미국가를 지칭하는데, 중국은 이들 제3세계 국가들이 패권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보았다. 또한 마오쩌둥은 1973년 2월 키신저(미국 정치학자)와의 미팅에서 "미국, 일본, 파키스탄, 이란, 터키,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구하겠다"말과 함께 '반소련'의 입장을 표명하였다.[19] 1970년에는 대외전략에 있어서 중국의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시기로 보인다.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온 베트남과 북한 외에도 <표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표어에 등장한 우방국으로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도 나타난다. 1970년대 중국은 아프리카 외교에 전력을 기울여 1970-1978년까지 24개국 수교 및 총 40개 아프리카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는다. 또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소련이 인도를 지원하는 것을 경계한 중국은 인도의 인접 국가인 파키스탄, 스리랑카, 버마, 방글라데시 등과 관계를 강화한다.[20] 이러한 국제 정세의 흐름을 당시에 나타나는 표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표어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1979년을 중심으로 수집된 표어 자료 가운데에는 '现代化(현대화)'라는 키워드(단어)가 다수 나타났다. (예: 社会主义现代化强国而奋斗!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분투!)) 사실상 이 키워드(단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54년으로 당시 第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四个现代化(4개의 현대화)'라는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

---

18) 1969년 3월 2일 중국과 소련 국경지대인 중국 헤이룽장성 우수리강 중류의 섬 전바오다오(珍宝岛)에서 양국 군대가 충돌하였다 …… 공산주의 이념 정통성과 헤게모니를 두고 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양국의 힘겨루기가 처음 가시화한 사건이었다.(최윤필, "전바오다오 분쟁", 『한국일보』, 2018.03.02.)

19) 제1세계는 세계의 패권을 추구하는 미·소 양 초강대국, 제3세계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가, 아프리카 및 중남미국가로 구성된다. 그리고 제1세계와 제3세계 사이의 선진국가(동서 유럽 제국, 일본, 캐나다 등)가 제2세계를 구성한다. (김옥준, 「1970년대 중국의 '반소' 외교」, 『사회과학논총』, 제28집 1호, 사회과학연구소, 2009, pp.70-72.)

20) 김옥준, 「1970년대 중국의 '반소' 외교」, 『사회과학논총』, 제28집 1호, 2009, pp.79-80.

은 '공업현대화', '농업현대화', '국방현대화', '과학기술 현대화'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 최고점 시기 : 1979년 | |
|---|---|
| 주제 | 연관단어 |
| 경제 | 现代化建设(현대화건설), 四个现代化(四化)(4개의 현대화),<br>社会主义现代化(사회주의현대화) 등 |
| 정치 | 军队革命化(군대혁명화) 등 |
| 사람(인물) | 阶级敌人(계급의적)[21], 三反分子[22],<br>英模(영웅과 모범인물), 周总理(저우총리) 등 |
| 국가 | 坦桑尼亚(탄자니아), 卢(卢森堡)(룩셈부르크) 등 |

<표6> 1979년 표어에 등장한 키워드(단어)

이후 '四个现代化(4개의 현대화)'를 계속 이어오다가 양적으로 더욱 구체화한 일화는 1979년 12월 덩샤오핑이 일본 수상 오히라마사요시(大平正芳)와 회담 시 제시한 내용으로 중국은 20세기 말에 국민총생산량(GNP) 평균 1000달러를 달성하여 소강(小康) 수준을 실현할 것이라 밝힌것[23]에서 비롯된다.

또 이 시기에는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었는데, 1976년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의 서거 시기와도 일부 연관이 있다.

그 외에 표어에 나타나는 관련국들을 살펴보면, 룩셈부르크는 중국과 70년대 초기 수교한 우방국이며, 탄자니아는 앞서 살펴본 1970년대 키워드(단어)에서 제시된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1964년에 국가를 수립한 탄자니아와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탄자니아-잠비아 철도 건설을 돕는다. 이 철도 건설로 인해 중국은 개발 도상국 사이에서 명성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후 중국의 탄자니아 투자가 계속 확대되어 '리틀 차이나'라고 불릴 정도[24]이며, 이러한 지원과 투자는 현재 일대일로 정책으로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企业(기업)'이라는 단어가 다수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미 1980년대부터 사기업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생산수준이 낮았다. 1990년대 이후 사기업의 반전 속도가 가속화되어 전체 공업총생산량의 7%를 차지하였고, 1991-1995년에는 사기업 생산액이 15%를 초과하게 된다. 또 등록자본이 100만원

21) 적대적 상황에 있는 사람과 정치사회집단 지칭. (百度)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국가와 사회에 반하는 대상을 일컫는 말로 풀이된다.
22) 三反分子(삼반분자) : '반(反)마오쩌둥, 반당(反党), 반(反)사회주의적 인간'이란 뜻이다. (조선일보DB)
23) 新华月报 社编,『新中国60年大事记[上]』, 人民出版社, 2010, p.513.
24) 「탄자니아는 왜 '리틀 차이나'로 불리나」(중앙일보, 2022.11.11.)

이상의 사영기업 수도 1991년 662개, 1992년 1081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46270개로 늘어난다.[25]

| 최고점 시기 : 1990년 | |
|---|---|
| 주제 | 연관단어 |
| 경제 | 经济(경제), 开发(개발), 企业(기업) 등 |
| 정치 | 中国共产党(중국공산당), 社会主义(사회주의) 등 |
| 사람(인물) | 劳动者(노동자), 教育人(교육인), 民工同志们(농민공동지들) 등 |
| 국가 | 斯中(스리랑카-중국) 등 |
| 기타 | 科学(과학), 科技(과학기술), 振兴中华(진흥중화),<br>旅游(여행), 养路(도로정비), 筑路(도로건설) 등 |

<표7> 1990년 표어에 등장한 키워드(단어)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은 저렴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민공이 출현하게 된다. 위의 표에서 '民工(민공 또는 농민공)'이라는 키워드(단어)도 나타나는데, 표어에서 이 단어는 90년대 후반까지 나타나고, 2000년대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두 번째 중심 키워드(단어)는 '教育(교육)'이다. 1980년대 중반에는 교육비 투자율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90년이후 1990-1995년 5년 사이에 총교육비가 이전의 3배 가까이 증가한다.[26] 해당 시기에는 再穷不能穷学校, 再苦不能苦孩子(아무리 가난해도 학교가 가난해서는 안 되며,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아이들을 고생시키면 안 된다), 重教育人, 振兴中华(교육자를 중시하고 중국을 진흥시키자) 등의 표어가 출현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풍조가 나타난다.

세 번째로 주요한 키워드(단어)는 '科学(과학)'과 '科技(과학기술)'이다. 1990년 인민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 科技标语上墙 …… 我国农村的深刻变化, 表达了当今农民学科学、信科学、用科学的强烈愿望。这些科技标语, 通俗晓畅, 易读易记, 农民学得到, 用得上, 自然十分欢迎.
>
> (과학기술 표어가 붙이는 것은 우리나라 농촌의 심대한 변화이며, 오늘날 농민들이 과학을 배우고, 과학을 믿고, 과학을 이용하고자 하는 강렬한 염원을 표한다. 이러한 과학기술 표어는 통속적이고, 쉽게 읽고 기억할 수 있으며, 농민들이 배우고 이용할

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사기업 현황」, 『지역경제』, 8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pp. 95-96.

26) 이춘근, 「중국의 교육비 관리와 투자 동향」, 『교육재정경제연구』, 제6권 제2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pp.57-460.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환영받고 있다.

위와 같이 1990년대 초기에 농촌에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덩샤오핑이 武昌, 深圳, 珠海, 上海를 돌면서 시찰하고 연설한 남방담화(南方谈话)에서 "经济发展得快一点, 必须依靠科技和教育. 科学技术是第一生产力(경제발전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고, 반드시 과학기술과 교육에 기대어야 한다.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이다)"라고 언급한 것 등을 볼 때, 당시는 '科技(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 최고점 시기 : 2006년 | |
|---|---|
| 주제 | 연관단어 |
| 경제 | 新农村建设(신농촌건설) 등 |
| 정치 | - |
| 사람(인물) | - |
| 국가 | 中柬(캄보디아) 등 |
| 기타 | 整脏治乱(정장치란), 人口计生(인구산아제한), 交通安全(교통안전) 등 |

<표8> 2006년 표어에 등장한 키워드(단어)

2000년대 이후의 표어는 이전과 달리 정치적인 선전 표어가 대부분 사라지고, 안전에 관한 표어 등 현대적인 공익표어가 주로 나타난다. 2006년 또한 표어 출연율이 다른 시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고점 시기였지만, 추출된 자료는 표어 문구 자체보다는 당시에 표어가 활용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어서 이전보다 다양한 키워드(단어)를 나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몇 가지 새로운 키워드(단어)는 존재한다.

우선 첫 번째로 '新农村建设(신농촌건설)'은 농촌경제를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경제발전 운동이다. 중국의 농촌개혁은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 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어 2006년에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는 신농촌건설 운동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27]

두 번째로 '整脏治乱(정장치란)' 특별프로젝트이다. 이는 2006년 구이저우성(贵州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관광지구(음식가판대, 정류장, 화장실 등)정비 그리고 주변 환경과 위생을 정돈하는 방안이다. 아래의 인민일보 내용에서 표어가 이러한 주요 활동 알림에서도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7) 魏悅,「한국 새마을운동과 중국 신농촌건설의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15, p.43.

在整脏治乱工作中 …… 利用标语 , 黑板报等形式广泛宣传, 让群众积极支持和参与.
('정장치란' 수행 중, 표어를 활용하고, 칠판 공고문 등의 형식을 통해 널리 선전하여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끈다.)

세 번째로 '人口计生(인구산아제한)' 키워드(단어)이다. 현재 출생률을 생각하면 중국은 1990년대부터 산아제한정책을 풀어야 했지만, 2000년에서야 '双独二孩'[28]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실질적인 정책홍보는 미미하여 2006년까지도 기존의 산아제한정책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3년에서야 산아제한정책위원회를 철회한다.[29] 그러나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마지막은 주변 국가 관련 키워드(단어) 가운데 등장한 '中柬(중국-캄포디아)'이다.

중국은 1992년-2012년까지 공공사업, 인프라 구축 등 29억 달러를 캄포디아에 무상으로 지원했으며,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의 해외 투자처이다.[30] 중국과 캄보디아 간의 우호 관계를 나타내는 표어는 2006년뿐만 아니라 1970년대부터 나타난다. 두 국가의 교류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표어 자료를 통해 다른 각도에서 알 수 있다.

<표1>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2011년은 앞서 소개한 최고점 시기들 가운데 표어 출연율이 가장 낮다. 또 2011년을 포함하여 그 이후 2015년까지의 자료에서도 이전과 다른 특징적인 키워드(단어)는 추출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본 절에서는 표어 속에 나타난 키워드(단어)를 시기별로 나누어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다음 절에서는 시대적 배경과 실제 표어를 대조하여 정리하고, 중국 국내의 사회적 변화와 그 주변국과의 관계 및 정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시대적 변화와 표어 문구 대조

### '정치적 표어에서 사회 및 경제발전으로의 표어'로 변화

중국이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겪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시기에 세계는 2차 대전의 막을 내리고, 국제 정세도 변해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당시에 이러한 세계적 국면 속에서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 수호("反对战争保卫和平")'를 외치

28) 부모 모두 독자일 경우,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중국 인구 정책.
29) 김용태, 「중국 산아제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옹호연합모형 관점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20, p33-46.
30) 주용식, 「G-2 체제에 대한 캄보디아의 대응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27권 3호, 한국동남아학회, 2017, p119.

는 표어들이 다수 등장하였으며, 또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공산당과 그 주력군인 인민해방군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현하는 표어 문구가 주를 이루는 시기였다.

국가 수립 이전 시기에는 전쟁 혹은 정치적 관련 키워드(단어)가 주를 이루었지만, 국가 수립 후에는 경제적 발전에 주력하는 변화를 표어 문구에서 읽을 수 있다.

이후 공산당은 1950년 토지개혁법을 발표하고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한다. 이어 1958년 대약진운동을 통해 중국의 농공업을 단기간에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50-60년대 초기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정책 표현과 의지도 표어에 남아있다. (관련 표어: "支持土地改革", "大跃进的伟大胜利" 등) 60년대 이후 「关于1960年国民经济计划的报告」 등을 비롯해 여러 경제 계획을 제시하며, 이전과는 다른 반기계화와 기계화 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에서 한 층 더 도약하고자 하였다. (관련 표어: "继续深入开展技术革新和技术革命运动")

수집된 표어 가운데 70년대에는 주변국과의 활발한 외교관계를 표현하는 표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농민공', '과학기술', '교육' 관련 키워드(단어)와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회 발전 면모를 보였다. (관련 표어: "农民工是建设社会主义新农村的主力军", "要想富, 学习科技找出路", "再穷不能穷学校, 再苦不能苦孩子" 등) 그 외에 2006년에 본격화된 농업 현대화를 위한 신농촌 건설 운동 (관련 표어: "建设新农村, 倡导新生活") 그리고 정장치란(整脏治乱) 프로젝트 (관련 표어: "全民参与, 共建美好家园") 등도 사회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단장(丹粧)하려는 변화의 흐름을 볼 수 있다.

### '주변국과의 관계' 및 '인물' 관련 표현에서의 변화

표어를 통해서 시대별로 국가 간의 관계 변화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50년 중국과 소련은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中苏友好同盟互助条约)을 맺었으며, 소련은 중국의 경제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이렇듯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후시기에 중국과 소련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당시 표어에는 "中苏友好合作万岁" 처럼 두 국가가 우호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1969년 전바오다오(珍宝岛) 분쟁 발생 후 '반소(反苏)'를 표명하고, 60년대 후반 이후의 표어에서는 더 이상 소련이 언급되지 않는다. 이후 70년대 주요 화두는 제국주의에 맞선 베트남전쟁(1960-1975년)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표어였으며, (관련 표어: "越南人民的抗美救国战争胜利万岁") 70년대 후반은 중국이 '제3세계론'을 제시하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가, 아프리카 및 중남미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외교관계를 맺었던 시기로 표어에서 어느 때보다 다양한 국가들의 명칭이 등장하였다. (3장 표와 아래 표 참고)

그 외에 표어의 키워드(단어)를 통해서 '마오쩌둥', '장제스', '저우언라이' 등의 인물들이 다수 거론되며 주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90년대 이후에는 실제 인물의 고유명사보다는 '농민공' ,'노동자', '교육인' 등 일반 명사 표현이 주로 나타났다.

아래 마지막으로 표어 문구의 내용과 대응되는 시대적 배경 및 구체적인 사건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정확한 역사적 시기는 「新中国60年大事记」와 관련 연구를 토대로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은 최초 시작점을 기준으로 재배열하였다.

| 시대적 배경 / 기준 시기 | |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949년 10월 1일) |
|---|---|---|
| 별도추가 | 1949년 | "中华人民共和国万岁" (중화인민공화국만세)<br>"欢迎人民解放军" (환영인민해방군)<br>"解放军带来了伟大的自由！" (해방군이 가져온 위대한 자유)<br>"团结起来保卫和平！" (단결하여 평화수호)<br>"反对战争保卫和平斗争胜利万岁"<br>(전쟁반대 평화수호 평화투쟁 승리만세) |
| 표어출현율최고점시기 | 1958년 | 중소(中苏)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1950년 2월 14일) |
| | | "中苏友好合作万岁！" (중소우호협력만세)<br>"欢迎苏联的和平政策" (환영소련의 평화정책) |
| | | 토지개혁 (1950년 6월 14-23일) |
| | | "支持土地改革！" (토지개혁지지)<br>"实行土地改革，发展农业生产！" (토지개혁실행 농업생산발전) |
| | | '4개의 현대화(四个现代化)' 거론 (1954년)[31] |
| | | "社会主义现代化强国而奋斗！" (사회주의현대화강국분투)<br>"保卫社会主义现代化建设"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의 보위)<br>"团结起来，为实现四个现代化努力奋斗！"<br>(단결하여 4개 현대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서 분투하자)<br>"为加速实现四个现代化而奋斗" (4개 현대화 실현의 가속을 위해 분투) |
| | | 대약진운동 (1958년-1960년) |
| | | "人人生产大跃进，户户储备光荣粮"<br>(모두들 대약진 생산 집집마다 영광의 식량 비축)<br>"总路线万岁！大跃进万岁！人民公社万岁！"<br>(총노선만세 대약진만세 인민공사만세)<br>"庆祝总路线，大跃进和人民公社的伟大胜利"<br>(경축총노선 대약진과 인민공사의 위대한 승리)<br>"高炉出铁是总路线，大跃进的伟大胜利！"<br>(용광로 철생산은 총노선 대약진의 위해한 승리) |

| 시대적 배경 / 기준 시기 | | 기술혁신, 기술혁명 |
|---|---|---|
| 표어출현율최고점시기 | 1960년 | "积极参加技术革新和技术革命运动"<br>(적극적 참가 기술혁신과 기술혁명 운동)<br>"继续深入开展技术革新和技术革命运动"<br>(계속 심화 전개 기술혁신과 기술혁명 운동) |
| | | 인도네시아 화교 '大宝康' 귀국 |
| | | "伟大祖国是华侨有力的靠山" (위대한 조국은 화교의 든든한 지원자)<br>"伟大的社会主义祖国是华侨最有力的靠山, 热烈欢迎印度受难华侨回到祖国温暖的社会主义大家庭"<br>(위대한 사회주의 조국은 화교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 열렬한 환영 인도 재난 화교 조국의 따스한 사회주의 공동체로의 귀국) |
| | 1970년 | 베트남전쟁 지지 (1960-1975년) |
| | | "越南必胜, 美帝必败！" (베트남 필승 미제국주의 필패)<br>"支持越南人民的抗美救国战争! " (지지 베드남인민의 항미구국전쟁)<br>"越南人民的抗美救国战争胜利万岁！"<br>(베트남인민의 항미구국전쟁 승리만세) |
| | | 제3세계론, 주변국과의 외교 |
| | | "中巴两国人民的友谊万岁!" (중-파키스탄 양국 인민의 우의만세)<br>"中国和索马里的友谊万岁!" (중국과 소말리아의 우의만세)<br>"牢不可破的朝中两国人民友谊团结万岁!"<br>(난공불락의 북중 양국 인민 우의단결만세)<br>"和中越两国人民的伟大友谊和战斗团结万岁!"<br>(중-베트남 양국인민의 위대한 우의와 전투단결만세)<br>"中阿两党, 两国人民伟大的革命友谊和战斗团结万岁!"<br>(중-아랍 양당 양국인민 위대한 혁명우의와 전투단결만세) |
| | 1979년 | 저우언라이 총리 서거 (1976년 1월 8일) |
| | | "谁反对周总理就打倒谁"<br>(그 누가 저우총리가 누구를 타도하는 것을 반대하는가) |
| | | 주변국과의 외교 |
| | | "中坦友谊万岁！" (중-탄자니아 우의만세)<br>"中, 卢两国人民的友谊万岁！" (중-룩셈부르크 양국인민의 우의만세) |

31) 시대별로 수집한 표어 자료에서 '四个现代化(4개의 현대화)'관련 문구는 1979년 자료에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3장 1절에서는 그대로 1979년 시기에 소개하였지만, 다시 재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거론된 초기 시점을 기준으로 1954년으로 표기하고 50년대로 분류하였다.

| 시대적 배경 / 기준 시기 | | 농민공 출현 |
|---|---|---|
| 표어 출현율 최고점 시기 | 1990년 | "农民工是建设社会主义新农村的主力军"<br>(농민공은 사회주의 건설 신농촌의 주력군)<br>"民工同志们辛苦啦, 祝大家回家过个好年！"<br>(민공동지들 수고했소 집으로가 설을 잘 쇠시길) |
| | | 과학기술, 교육 중시 |
| | | "要想富, 学习科技找出路"<br>(부유하고자 한다면 과학기술을 익혀서 길을 찾자)<br>"重教育人, 振兴中华" (교육자를 중시하고 중국을 진흥시키자)<br>"再穷不能穷学校, 再苦不能苦孩子"<br>(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아이들을 고생시키면 안 된다) |
| | 2006년 | 신농촌건설(新农村建设) |
| | | "建设新农村, 倡导新生活" (건설 신농촌 창도 신생활)<br>"把青春献给社会主义新农村" (청춘을 사회주의 신농촌에 바치자)<br>"落实科学发展观, 创建和谐新农村"<br>(과학발전관 확정 조화로운 신농촌 창건) |
| | | 정장치란(整脏治乱) 프로젝트 |
| | | "全民参与, 共建美好家园！"<br>(모든 인민 참여 아름다운 가정 정원 공동 건설)<br>"人人参与"整治"家家门前保洁"<br>(모두 참여 "정치(整治)" 집집마다 집 앞 청결)<br>"整脏治乱, 我参与, 我享受, 我快乐！"<br>(정장치란(整脏治乱), 나의 참여 나의 향유 나의 기쁨) |

## 4. 맺는말

표어는 시대적 흐름과 이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시대적 산물이다.

본 연구는 표어를 단지 문자 언어학적 관점의 분석 대상에서 뛰어넘어 표어 문구가 존재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을 연결하여 바라보고자 하였다.

일부 표어는 주제별로 남겨져 있기도 하지만 더 많은 표어가 시대적 이야기를 품고 역사에서 사라지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표어 자료를 퍼즐 맞추듯 시대별로 대조 정리 및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생각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표어 자료의 통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어를 통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일부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BCC를 통해 살펴본 인민일보의 기사 내용 가운데 표어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선 시기별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범주는 1949-2015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10년 단위로 나눈 후, 시기별로 표어 출연율이 최고점을 나타내는 시기를 별도로 분류하였다. 각 시기에 나타난 표어에서 키워드(단어)를 추출하고, 이를 시대적 배경 및 사건과 연관 지어 그 변천사를 살펴보았다.

표어 출연율은 1950년대 후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1960년대는 어느 시기보다 표어가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다. 그 이후 시기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80-90년대는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인 정체기를 보였다. 또 2000년대 초반에도 한두 차례 증폭기가 나타나지만, 이전보다는 미미했다.

표어 문구에 나타난 키워드(단어)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초기에는 정치적 표어가 주류를 이루다가 점차 사회 및 경제발전을 제창하는 표어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각 시기에 주요 정책과 사건, 인물 등이 반복하여 언급되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은 시대별로 우호적인 혹은 적대적인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도 표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표어 자료는 중국의 언어 및 역사와 사회를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향후 언어학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향후 표어 관련 연구에 유용한 연구 성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단행본>

김상균·신동윤,『사진으로 보고 배우는 중국문화』, 동양books, 2015.

高　剑·李友云,『标语口语』, 蓝天出版社, 2012.

陶永灿,『老标语——中国墙壁上的历史』, 电子工业出版社,2012.

新华月报 社编,『新中国60年大事记(上)』, 人民出版社, 2010.

<논문>

김동욱·이민상·정재영·김현철,「코로나19 관련 키워드 분석: 토픽 모델링과 의미 연결망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21권 제2호,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2022.

김옥준, 「1970년대 중국의 '반소' 외교」, 『사회과학논총』, 제28집 1호, 사회과학연구소, 2009.
김용태, 「중국 산아제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옹호연합모형 관점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20.
김호태·김동성·김종우, 「로동신문 키워드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대외적 행태 변화」,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발표자료,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사기업 현황」, 『지역경제』, 8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이미경, 「한국전 후 북한과 중국, 소련의 관계: 협력속의 균열」, 『중소연구』, 24권4호, 아태지역연구센타,2000.
이준태, 「華僑社會의 형성과 中國의 華僑政策에 대한 고찰」, 『아태연구』, 제11권 제1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04.
이춘근, 「중국의 교육비 관리와 투자 동향」, 『교육재정경제연구』, 제6권 제2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주용식, 「G-2 체제에 대한 캄보디아의 대응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27권 3호, 한국동남아학회, 2017.
한상준, 「중국의 북한과 베트남 정책 연구, 1949~1964」, 『국제중국학연구』, 97권, 한국중국학회, 2021.
魏 悅, 「한국 새마을운동과 중국 신농촌건설의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15.

<기타자료>
최윤필, "전바오다오 분쟁", 『한국일보』, 2018.03.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020472123803
김은수, "탄자니아는 왜 '리틀 차이나'로 불리나", 『중앙일보』, 2022.11.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6756
陈燕楠, "最早提出群众路线这一说法是在1929年", 『人民网-中国共产党新闻网』, 2013.04.01., http://dangjian.people.com.cn/n/2013/0401/c117092-20985705.html
"泉州印尼归侨庆回国50周年 感叹祖国是有力靠山", 『中国新闻网』, 2010.05.24., https://www.chinanews.com/zgqj/news/2010/05-24/2301222.shtml

# 【논문초록】


| 키워드 Key Words | 중문 | 标语, 中国标语, Slogans, 关键词分析, 历时分析 |
|---|---|---|
| | 영문 | Slogans, China-slogans, Keyword analysis, Diachronic analysis |


**A Study on China's Historical Changes through Keyword Analysis of State-led Slogans : Focusing on the Chinese Slogan of 1949-2015**

Ki Yu-Mi


Slogans are an important product of history that can read the trends of the times and changes in issues.

This study attempted to look beyond the subject of analysis from a literal linguistic perspective and to connect the social situation with the background of the time when the slogan phrase existed.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ttempted a comprehensive analysis of slogan data, through BCC. The survey category was limited to 1949-2015, and after dividing it into 10-year units, the period when the peak of the slogan appearance rate was separately classified by period. Keywords (words) were extracted from the slogans that appeared in each period, and their history was examined by relating them to the background and events of the times.

The rate of appearance of slogans gradually increased from the late 1950s, and in particular, in the 1960s, slogans appeared at a higher rate than any other period. After that, the increase and decrease were repeated, but the 80s and 90s showed a relative stagnation perio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In addition, amplifiers appeared once or twice in the early 2000s, but they were smaller than befor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rend of keywords (words) in the slogan phrase, political slogans tended to become mainstream in the beginning and gradually change into slogans advocating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major policies, events, and people were mentioned repeatedly at each time. Another interesting point was the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at were friendly or hostile by era through the slogan.



| 저 자 | 기유미 / 奇唯美 / Ki Yu-Mi | | | | | |
|---|---|---|---|---|---|---|
| 논문작성일 | 투 고 일 | 2023.02.10. | 심 사 일 | 2023.03.06. | 게재확정일 | 2023.03.20. |